

번역학에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에서의 통번역: 연구 동향과 학제 간 소통의 과제*

최은경(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번역학¹⁾과 한국어교육은 그간 각각의 독립적인 학문 체계를 구축하며 발전해 왔다. 번역학이 언어 간 의미 전달과 문화적 매개 과정의 규명에 주력해 왔다면, 한국어교육은 한국어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기제 마련에 집중해 왔다. 이처럼 지향점은 상이하나, 두 분야는 학문적 성립 배경과 의사소통이라는 본질적 층위에서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다.

우선, 두 학문은 실천적 활동으로서의 긴 역사에 비해 독립적 학술 체계로 정립된 시점이 비교적 최근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한국어교육은 1980년대 이후 학위과정 설립과 제도적 토대를 통해 학문적 정체성이 형성되었고(강소영 등, 2025; 강승혜, 2003), 번역학 역시 20세기 중반 이후 비교문학이나 응용언어학의 하위 분야에서 벗어나 1970년대 홀즈(Holmes, 1988/2004)의 선언을 기점으로 고유한 연구 대상과 방법론을 갖춘 학문으로 발전하였

* 본고는 2026년 4월 18일 한국번역학회 봄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본고에서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은 통역 연구와 번역 연구를 아우르는 상위개념으로 사용한다.

다(Munday et al., 2022; Pym, 2014). 이러한 신생 학문적 성격은 두 분야가 상호 경계를 넘어 새로운 학제적 논의를 수용하는 데 있어 높은 유연성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언어적 이해와 발화라는 본질적 소통 행위를 탐구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 역시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내적 유사성은 두 분야 간 학제적 접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며, 언어 교육과 번역의 실제적 접점이 확대됨에 따라 두 분야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은 학제적 융합을 통한 연구 지평 확장의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가속화되고 있다. 첫째, 인류의 전 지구적 확산과 한국어 학습 인구의 급증은 한국어교육 분야에 통번역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이 다양화되면서, 특히 통번역 실무로 진출하고자 하는 고급 학습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이민우, 2012; 허은혜, 2023),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의 영역에서도 최근 10년간의 교양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강민석(2026)의 결과를 보면, 2023년 이후 ‘기계번역’이 핵심 키워드로 새롭게 부상하였으며 2025년에는 ‘번역’이 별도의 상위 키워드로 도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통번역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 방안,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 과정 설계, 기계번역 활용,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 전략 등 번역학과의 학제 간 접근이 필요한 주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둘째, 번역교육에서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습자들의 증가로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번역교육 연구는 주로 한국어를 A언어(모국어)로, 외국어를 B언어(제2언어)로 설정한 한국인 통번역사를 양성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 중심의 논의에 편중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교육 및 실무 현장에서는 한국어를 B언어로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외국인 통번역사들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한국어는 고도의 숙달도가 요구되는 학습 대상이 된다. 번역학이 기본적으로 두 언어 쌍 간의 매개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번역 행위의 핵심 축을 구성하는 한국어와 한국어교육에 대한 학술적 고찰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번역사의 언어 능력을 당연시하는 전제로 인해, 통번역 교육을 포함한 관련 연구에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여

전히 미진한 실정이다(성초림, 2014, p. 362; 최문선과 김현오, 2017, p. 160; 홍설영, 2017, p. 162; 홍정민, 2017, p. 277).

이러한 맥락에서 번역학과 한국어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두 분야 간 연구 교류는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각 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와 방법론을 비교하고, 공통 관심사와 연구 공백을 확인하는 작업은 향후 학제 간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번역학과 한국어교육의 연구 동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두 분야는 각각의 학술적 전통과 방법론을 발전시켜 왔으나, 학제 간 연구의 현황과 가능성에 대한 메타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두 분야를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 주제의 분포, 연구 방법론의 특징, 학문 공동체 간 교류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번역학과 한국어교육이라는 방대한 두 학문 영역 전체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보다, ‘통번역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통번역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학제적 층위를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두 분야의 주요 학술지를 대상으로 최근 30년간 발표된 논문을 수집하여, 정량적 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다층적으로 탐색할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별 논문 발행 편수의 추이를 통해 두 분야에서 상대 영역에 대한 연구가 전개되어 온 양적 흐름을 파악한다. 둘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각 분야에서 도출되는 핵심 주제어의 연결 구조와 군집을 시각화하고, 해당 논문들의 제목과 초록을 참조한 질적 검토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해석한다. 셋째, 두 분야의 분석 결과를 비교·종합하여 학제 간 소통의 현재 양상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한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번역학 분야의 한국어교육 연구와 한국어교육 분야의 통번역 연구는 시기별로 어떠한 양적 추이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2. 두 분야의 접점을 다룬 연구의 주요 주제의 구성과 특징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3. 번역학과 한국어교육의 학제 간 연구 현황을 바탕으로 도출되는 학제 간 소통의 과제는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번역학과 한국어교육 두 학문 영역에서 상대 영역을 다룬 연구의 동향을 비교하기 위해, 각 영역을 대표하는 KCI 등재 학술지를 선정하고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번역학 영역에서는 『번역학연구』, 『통번역교육연구』, 『통번역학연구』, 『통역과 번역』²⁾, 『T&I Review』(가나다 순)을, 한국어교육 영역에서는 『언어와문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한국어 교육』, 『한국언어문화학』(가나다 순)의 5종³⁾을 선정하였다. 이들 학술지는 각 분야의 대표적 등재 학술지로서 해당 학문 공동체의 연구 경향을 반영한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기간은 1996년부터 2025년까지 30년으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은 국내 번역학이 전문 학술지를 통해 제도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현재까지의 연구 동향을 포괄한다. 분석 기간 중 창간된 학술지는 창간호부터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학술지별 분석 기간은 <표 1>과 같다. 이에 따라 시기별 추이를 해석할 때에는 초기 구간의 논문 수가 당시 발행 중이던 학술지 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2) 『국제회의통역과번역』은 2008년 『통역과 번역』으로 학술지명을 변경하였다. 본고에서는 창간호부터 2025년까지의 논문을 모두 연구 대상에 포함하나, 현재의 명칭인 『통역과 번역』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3) 김지혜(2025) 역시 최근 약 25년간 한국어교육의 연구 주제 변화를 키워드 분석으로 확인하기 위해 해당 5종을 한국어교육의 대표 학술지로 선정하였다.

표 1
분석 대상 학술지 개요

영역	학술지명	발행기관	분석 기간	전체 게재 논문 수	분석 대상 논문 수
번역학	번역학연구	한국번역학회	2000~ 2025	996	1
	통번역교육연구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03~ 2025	632	3
	통번역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1997~ 2025	762	5
	통역과 번역	한국통역번역학회	1999~ 2025	594	5
	T&I Review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2011~ 2025	168	2
한국어 교육	언어와문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4~ 2025	789	2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996~ 2025	580	7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1996~ 2025	1144	23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6~ 2025	1178	12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2025	609	21

자료 수집은 KCI 홈페이지에서 학술지별 게재 논문의 서지 정보(제목, 저자, 발행 연도, 초록, 저자 키워드)를 엑셀(Excel) 형식으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추출된 자료에서 서평, 학회 소식 등 비연구물을 제외하고, KCI 데이터에 누락된 정보는 발행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 원문과 대조하여 수동으로 보완하였다. 이후 번역학 학술지 게재 논문 중에서는 한국어교육을 다룬 논문을, 한국어교육 학술지 게재 논문 중에서는 통번역을 다룬 논문을 선별하였다. 선별은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1차 선별에서는 번역학

학술지 논문의 경우 제목 또는 저자 키워드에 ‘한국어’ 및 ‘한국어교육’이 포함된 논문을, 한국어교육 학술지 논문의 경우 ‘번역’, ‘통역’, ‘통번역’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을 추출하였다. 또한 학습자에 따라 A언어/B언어, L1/L2 등 한국어 학습을 달리 지칭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완 검색을 병행하여 관련 논문의 누락을 방지하였다. 2차 선별에서는 1차 추출 논문의 제목, 저자 키워드, 초록을 검토하여 연구 내용이 실제로 상대 영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다. 번역학 학술지 논문 중 한국어를 번역의 출발어나 도착어로 다루었을 뿐 한국어 교수·학습과 무관한 논문은 제외하고, 판단이 모호한 경우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한국어 교수·학습에 대한 논의가 연구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정하였다. 교육적 함의가 결론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데 그치는 논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번역학 내 한국어교육 연구 16편, 한국어교육 내 통번역 연구 86편, 총 102편을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분석은 시기별 연구 추이 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시기별 연구 추이 분석에서는 두 영역의 논문을 발행 연도별로 집계하여 게재 추이를 비교하고, 학술지별 분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각 영역에서 상대 영역에 대한 연구가 언제부터 본격화되었는지, 그 규모와 성장 양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아울러 분석 대상 논문에 기재된 저자의 소속 기관과 학과(전공) 정보를 확인하여, 두 영역의 연구가 어떤 학문적 배경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는지 검토하였다.

둘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 논문의 저자 키워드를 추출한 뒤 데이터 정제를 수행하였다. 국문 키워드 없이 영문 키워드만 제시된 논문의 경우 해당 키워드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통일하되, 고유명사와 약어는 원 표기를 유지하였다. 표기가 상이한 동일 개념(예: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교육’, ‘통·번역’과 ‘통번역’ 등)은 유의어 통합 기준을 마련하여 하나의 키워드로 통일하였고, 검색 및 선별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어는 불용어로 제거하였다. 정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동시출현(co-occurrence)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네트워크 지표 산출과 시각화에는 VOSviewer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시출현은 두 키워드가 동일한 논문의 키워드로 함께 출현한 것을 의미하며, 이때 두 키워드는 상호 연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의어 통합

은 VOSviewer의 시소러스(thesaurus) 기능을 활용하였고, 키워드별 출현 빈도와 총연결강도(total link strength)를 산출하는 한편 군집 분석을 통해 각 영역의 주요 연구 주제군을 도출하였다. 이때 군집은 상대적으로 밀집하게 결합된 키워드들의 하위 집단을 의미한다. 두 영역의 네트워크를 각각 구축하여 중심 키워드와 군집 구성을 비교함으로써 연구 관심사의 공통점과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키워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대상 논문의 본문을 참조하여 연구 내용을 질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3장에서 제시하고, 4장에서 종합하여 두 영역 간 학제 간 소통의 양상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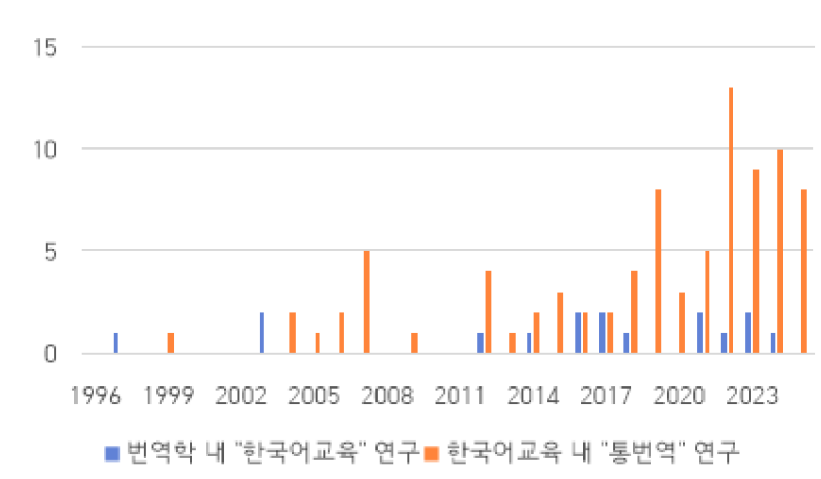
3. 번역학과 한국어교육의 상호 연구 동향 분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1 연도별 연구 추이

두 영역의 연도별 관련 논문 발행 추이는 <그림 1>과 같다. 분석 기간 중 가장 이른 논문은 1997년 번역학 학술지에서 확인되며, 한국어교육 학술지에서는 1999년에 첫 관련 논문이 나타났다. 번역학 분야의 첫 논문(정연일, 1997)은 예비 통역사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지도를 다룬 것으로, 통번역 전공자의 한국어 능력이라는 교육 차원의 문제가 이 접점의 출발점이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어교육 학술지의 첫 관련 논문(곽성희, 1999) 역시 번역학 분야에서 활동해 온 연구자에 의해 발표된 것으로, 초기에 통번역과 한국어교육의 접점을 시도한 연구들은 번역학 분야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의 전개 양상은 두 영역에서 뚜렷하게 갈린다.

그림 1
연도별 논문 발행 추이(1996~2025)



한국어교육 내 통번역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간헐적으로 이어지다가 2007년 5편으로 일시적 증가를 보였고, 2012년 이후에는 매년 관련 논문이 발표되는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전체 규모로 보면 분석 대상 한국어교육 학술지 5종에 게재된 논문 4,300편 가운데 2%(86편)만이 통번역을 다룬 것으로, 통번역이 한국어교육 연구의 주류 주제는 아니나 꾸준한 흐름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8편을 기점으로 발행량이 크게 늘어 2022년에는 13편으로 정점에 이르렀으며, 2023년 9편, 2024년 10편, 2025년 8편 등 최근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86편 가운데 56편(65.1%)이 2019년 이후에 발표되어, 한국어교육 학계에서 통번역에 대한 관심이 최근 수년 사이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는 학문 목적·직업 목적 등 특수 목적 한국어교육의 확대, 번역·통역 전공 유학생의 증가,⁴⁾ 기계번역과 생성형 AI의 확산 등 한국어교육 현장의 변화와 맞물린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며(강민석, 2026; 신윤경과 임형재, 2026; 허은혜, 2023), 그 구체적

4) 하나의 예시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KFL 대학원과 KFL 학부를 신설하였다(김혜영, 2021, p. 78).

양상은 3.2절에서 상세히 확인할 것이다.

반면 번역학 내 한국어교육 연구는 30년간 총 16편으로 논문이 발표되지 않은 해가 더 많고, 발표된 해에도 연 1~2편 수준에 머물러 있다(<부록 1> 연구 목록 참조). 비율로 보면 분석 기간 내 출판된 논문 3,152건 중 한국어교육 관련 내용은 0.5%에 해당한다. 1997년과 2003년에 초기 논문이 나타난 이후 약 10년간 공백이 이어졌고, 2012년 이후 산발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한국어교육 영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뚜렷한 증가세는 확인되지 않는다. 두 영역 모두에서 관련 연구가 나타난 구간을 보더라도 2016~2018년에 번역학 분야 논문 수가 한국어교육 분야의 55.6%였으나 2021~2024년에는 16.2%에 그쳐, 격차는 최근으로 올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논문 저자의 소속을 확인해 보면 이러한 비대칭은 더욱 뚜렷해진다. 제1저자 기준으로 16편 중 10편의 저자가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계열 학과 소속이며, 특히 한국어교육 영역에서 통번역 연구가 본격화된 시점을 전후한 2018년 이후의 번역학 분야 내 한국어교육 논문은 모두 한국어교육 관련 분야 소속 저자에 의해 발표되었다. 즉 번역학 지면에 실린 한국어교육 연구조차 상당 부분 한국어교육 전공 연구자의 성과인 것이다.

이상의 분석은 두 영역의 관심이 비대칭적임을 보여준다. 한국어교육은 통번역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최근 들어 더 활발하게 수용하고 있는 반면, 번역학에서 한국어교육은 지속적인 연구 주제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이러한 비대칭은 편수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번역학 지면에 실린 소수의 연구마저 상당 부분 한국어교육 전공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번역학 내부의 연구 관심은 16편이라는 표면적 수치보다도 더 제한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관련한 첫 논문이 발표된 1990년대 후반에는 번역학 연구자들이 두 영역의 지면 모두에서 이 접점을 다루었던 반면, 최근에는 그 역할을 한국어교육 전공 연구자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30년 사이 이 주제의 담당 주체가 이동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번역학 학술지의 발행 시작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 초기 구간의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최근 10여 년간 두 영역이 보인 추이와 저자 구성의 차이는, 두 학문 사이의 교류가 번역학의 대상과 개념을 한국어교육이 수용하는 일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3.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저자 키워드가 없는 두 편을 제외하고, 확인되는 100편(번역학 15편, 한국어교육 85편)을 대상으로 하였다.⁵⁾ 논문 검색 및 선별 기준에 해당하여 높은 빈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반 키워드(번역, 통역, 통번역, 한국어, 한국어교육 등)는 불용어로 제거하였는데, 이는 이들 키워드가 네트워크의 중심을 차지할 경우 선별 조건이 분석 결과로 재확인되는 반복에 그쳐 실질적인 주제 구조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는 최소 출현 빈도를 1로 설정하여 구축하였으며, 서로 연결되지 않은 키워드가 존재하는 경우 최대 연결 성분(largest connected component)의 규모를 함께 보고한다. 연결 성분은 동시출현 연결을 따라 서로 도달할 수 있는 키워드들의 집합을 말하며, 최대 연결 성분은 그중 가장 큰 집합으로, 그 규모는 해당 영역의 연구들이 키워드를 공유하며 하나의 연결망으로 이어져 있는 정도를 보여준다. 저빈도 키워드까지 포함한 것은 분석 대상 논문 수와 키워드 규모를 고려할 때 1회 출현 키워드도 주제 지형의 유의미한 일부를 구성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키워드 차원의 해석과 군집 명명은 논문 간에 공유된, 즉 2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3.2.1 번역학 내 한국어교육 연구: 주제적 수렴의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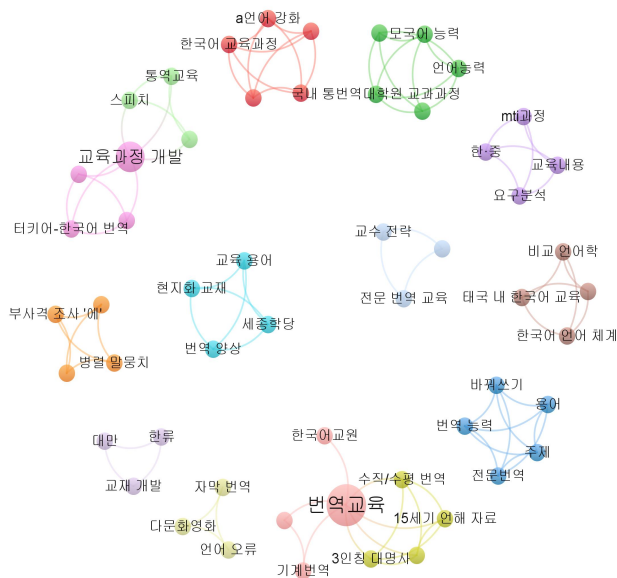
번역학 내 한국어교육 연구 15편에서는 정제 후 총 55개의 고유 키워드가 추출되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는 번역교육(3회)과 교육과정 개발(2회) 단 2개에 불과하였다. 동시출현 연결망을 형성한 키워드 역시 55개 중 8개(14.5%)에 그쳤으며, 이 연결망조차 번역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한 3편의 논문이 느슨하게 이어진 것으로, 주제군이라 부를 만한 응집 구조를 이루지는 못한다. 나머지 53개 키워드는 개별 논문 안에서만 등장할 뿐 논문 간에 공유되지 않았다.

<그림 2>는 55개 키워드 전체의 동시출현 네트워크이다. 그림에서 확인

5) 정연일(1997)의 「예비 통역사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지도의 방향」(번역학)과 광성희(1999)의 「Acceptability and Grammaticality in English-Korean Translation」(한국어교육)은 KCI 정보 및 학술지 원문에서 저자 키워드가 확인되지 않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논문 간 연결은 번역교육을 공유한 3편, 교육과정 개발을 공유한 2편이 이루는 두 개의 소규모 네트워크가 전부이며, 대부분의 키워드는 자신이 속한 논문의 키워드들과만 고리를 이룬 채 서로 분리되어 있다. 하나의 지도 안에 사실상 12개의 독립된 소집단이 연결되지 않은 채 나란히 존재하는 이 형상은, 이 영역의 연구들이 공유된 주제적 기반 없이 수행되어 왔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2
번역학 내 한국어교육 연구의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⁶⁾



키워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파편화의 성격이 더 분명해진다. 55개 키워드의 상당수는 특정 언어권, 기관, 개별 교육 맥락에 결부된 것들이다. 태국의 한국어교육, 터키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우즈베크어 번역과 같이

6) 연결선은 두 키워드가 같은 논문에 함께 출현하였음을 나타낸다. 연결 관계가 없는 키워드들이 원형으로 흩어져 배치된 것은 논문 간 공유 키워드가 거의 없기 때문이며, 개별 키워드의 위치와 순서는 별도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개별 언어권에 특화된 키워드, 국내 통역번역대학원 교과과정, 세종학당과 같이 특정 기관과 제도에 결부된 키워드, A언어 강화, 스피치, 바퀴쓰기와 같이 개별 수업 기법 차원의 키워드가 각각 한 편의 논문에만 나타난다. 즉 번역학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들은 저마다의 구체적인 교육 현장 문제에서 출발하되, 그 결과가 후속 연구와 공유되는 개념이나 논점으로 수렴되지 못한 채 개별 사례 보고의 수준에 머물러 온 것이다.

시기별로 보아도 축적의 계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초기 연구의 키워드는 이후 연구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으며, 유일하게 논문 간에 공유된 번역교육이라는 키워드도 2021년 이후에야 반복 출현한다. 30년 동안 이 주제를 다룬 연구자들이 서로의 개념을 이어받아 논의를 발전시킨 흔적이 키워드 수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번역학 내에서 한국어교육이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정량적 근거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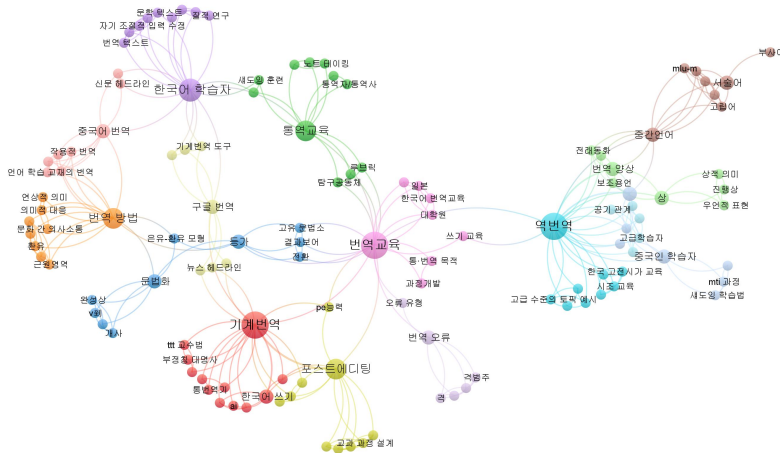
3.2.2 한국어교육 내 통번역 연구: 분화된 주제 구조

한국어교육 내 통번역 연구 85편에서는 정제 후 총 310개의 고유 키워드가 추출되었고, 이 중 128개(41.3%)가 하나의 동시출현 연결망을 형성하였다. 2회 이상 출현한 핵심 키워드도 35개에 이른다. 출현 빈도 기준 상위 키워드는 기계번역(7회), 번역교육(7회), 역번역(7회), 한국어 학습자(5회), 통역교육(4회), 포스트에디팅(4회), 번역 방법(4회) 순이며, 키워드 간 연결의 총량을 나타내는 총연결강도에서는 역번역(27), 기계번역(24), 번역교육(21), 한국어 학습자(19), 번역 방법(17), 포스트에디팅(15)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들 상위 키워드가 하나의 군집에 몰려 있지 않고 각기 다른 군집의 중심 노드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군집 분석 결과 최대 연결 성분 128개 키워드는 14개 군집으로 분류되었는데, 출현 빈도 상위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주요 군집을 보면, 기계번역 군집, 포스트에디팅 군집, 역번역 군집, 번역교육 군집,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학습자 번역 수행 군집, 번역 방법 군집, 통역교육 군집, 그리고 중간언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한 학습자 언어 분석 군집이 확인된다. 이처럼 상위 키워드마다 별도의 군집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 영역의 연구가 소수 주제의 반복이 아니라 복수의 하위 영역으로 분화하며 성장해 왔음을 뜻한다. 전체 네트워크는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한국어교육 내 통번역 연구의 키워드 동시출현 네트워크



위와 같은 군집의 구성과 배치는 한국어교육의 통번역 관련 연구 지형에 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기술 매개 번역이 현재 가장 활발한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기계 번역 군집과 포스트에디팅 군집은 주요 군집 가운데 평균 출판연도가 가장 최근이며, 구글 번역과 네이버 파파고 등 구체적 번역 도구를 다룬 소군집까지 더하면 기술 관련 키워드는 단일 주제로서 최대 규모를 이룬다. 이는 3.1에서 확인한 2019년 이후의 급격한 양적 증가가 상당 부분 기계번역과 생성형 AI의 확산이라는 기술 환경 변화에 의해 견인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군집에서 기계번역이 한국어 쓰기, 학문 목적 쓰기, 쓰기 과제 등 쓰기 교육 키워드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이는 기계번역이 한국어 쓰기 교육의 도구이자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역번역이 이 영역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였다. 역번역은 출현 빈도(7회)에서 기계번역, 번역교육과 나란할 뿐 아니라 총연결강도(27)에서는 전체 1위로, 가장 많은 키워드와 함께 연구된 개념이다. 네트워크에서도 역

번역 군집은 다른 군집들과 구분되는 위치를 차지한다. 역번역은 번역학 내 한국어교육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키워드로, 두 영역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편 평균 출판연도가 가장 이른 학습자 언어 분석 군집이 학습자의 번역문에 나타난 언어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들로 구성되고 네트워크상에서 역번역 군집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역번역 연구의 상당수가 역번역문의 어휘, 연결어미 등 언어 특징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학습자 번역문의 언어 분석이라는 분석적 관심이 역번역이라는 새로운 설계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시간 축에서 주제의 이동이 관찰된다. 학습자 언어 분석 군집과 통역교육 군집의 평균 출판연도가 가장 이르고, 번역 방법 군집이 중간, 역번역과 번역교육 군집을 거쳐 기계번역과 포스트에디팅 군집이 가장 최근이다. 요컨대 이 영역의 연구는 학습자 번역문의 대조언어학적 분석과 통역 훈련법에서 출발하여, 번역을 활용한 교육 방법론과 교육과정 논의로 확장되고, 최근에는 기술 매개 번역으로 중심을 옮겨 왔다. 한편 통역 관련 키워드는 빈도와 최신성 모두에서 번역 관련 키워드에 미치지 못하지만, 통역 관련 연구가 한국어교육 안에서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 번역만이 아니라 통역 역시 한국어교육의 교육 내용이자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두 영역의 네트워크를 종합하면 대비는 뚜렷하다. 한국어교육 내 통번역 연구는 기술(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방법(역번역), 제도(번역교육, 교육과정), 대상(학습자 수행과 언어), 이론(번역 방법과 전략)의 차원으로 분화된 주제 구조를 형성하며 시간에 따른 주제 이동까지 보여주는 반면, 번역학 내 한국어교육 연구는 이에 상응하는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연결망 형성 비율(41.3% 대 14.5%)과 반복 출현 키워드 수(35개 대 2개)의 차이는, 3.1에서 확인한 양적 비대칭이 단순한 편수의 차이가 아니라 연구의 조직화 수준의 차이임을 보여준다. 역번역과 같이 한국어교육 쪽에서는 하나의 군집을 이룰 만큼 반복되는데 번역학 쪽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키워드의 존재는, 두 영역이 유사한 접점을 다루면서도 서로 다른 관심사를 발전시켜 왔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가 학제 간 소통의 관점에서 지니는 함의는 4장에서 논의한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번역학과 한국어교육이라는 두 학문이 서로를 어떻게 연구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분야의 KCI 등재 학술지 10종에서 1996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 게재된 논문 가운데 상대 영역을 다룬 102편을 대상으로 시기별 추이 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문제 1과 관련하여, 두 영역의 양적 추이와 연구 수행 주체는 뚜렷한 비대칭을 보였다. 한국어교육 내 통번역 연구는 총 86편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고 특히 2019년 이후 56편이 집중되며 본격화된 반면, 번역학 내 한국어교육 연구는 30년간 16편에 그쳐 발표되지 않은 해가 더 많았으며 최근의 증가세도 확인되지 않았다. 나아가 이 16편 중 10편이 한국어교육 계열 소속 저자에 의해 수행되었기에, 번역학 지면의 관련 연구조차 상당 부분 한국어교육 쪽의 성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문제 2와 관련하여, 이 양적 격차는 연구의 조직화 수준의 격차로 이어졌다. 한국어교육 쪽은 기계번역·포스트에디팅, 역번역, 번역교육, 학습자 수행, 번역 방법, 통역교육 등으로 분화된 군집 구조와 시기에 따른 주제 이동(대조분석·통역 교육에서 기계번역·AI로)을 보여주었지만, 번역학 쪽은 반복 출현 키워드가 2개에 불과하고 최대 연결 성분이 전체 키워드의 14.5%에 그쳐 응집된 주제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 3, 곧 학제 간 소통의 과제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번역과 한국어교육의 접점은 현재 한국어교육 분야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영역이 되고 있으므로, 번역학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국내 번역학의 주된 관심은 외국어와의 사이를 오가는 전문 번역·통역에 치중해 왔으며, 이 구도에서 한국어교육은 독자적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30년간 16편이라는 논문 수, 키워드의 과편화, 최근 증가세의 부재가 이를 일관되게 보여준다. 그 사이 한국어교육 내 86편의 논문이 형성한 분화된 주제 구조는 이 분야가 점점 영역을 이미 자신의 연구 의제로 발전시켜 왔음을 보여주며, 실제로 한국어교육에서는 이 영역을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으로 명명하며 특수 목적 한국어교육의

하위 범주로 자리매김해 왔다.⁷⁾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 확대와 통번역 전공 외국인 학습자의 증가라는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이 흐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번역학에서도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를 개별적 시도가 아닌 연구 영역으로 의제화하고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성초림(2014)은 국내 통번역대학원 한국어교육 현황을 파악하며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한국어 교육에 관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토론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p. 373)한 바 있으나, 십여년이 지난 지금도 번역학의 연구 지형에서 한국어교육은 가시적인 영역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공백은 용어 차원에서도 드러난다. 본 연구가 분석한 번역학 내 관련 논문들에서 통번역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은 모국어, A언어, 한국어 등으로 연구마다 다르게 지칭된다. 공유된 용어의 부재는 이 주제가 번역학 안에서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정립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이다. 나아가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에서 외국인 학습자로 다양화되면서 모국어나 A언어와 같은 기존 용어로는 포괄되지 않는 대상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번역학 내 한국어교육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달라진 학습자 집단을 반영한 개념의 정비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두 학문 사이 상호 연구의 필요성은 개념 이동의 사례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역번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역번역은 본래 번역학과 비교문화 연구에서 번역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 곧 번역문을 원어로 되돌려 원문과의 일치율을 확인하는 방법(Brislin, 1970)으로 활용해 온 개념으로, 번역학의 주요 연구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은 이를 교육 방법으로 차용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교수자가 다국적 학습자의 다양한 모국어에 접근할 수 없다는 한국어 교실의 현실적 제약이 있었으며, 학습자의 한국어 역번역문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언어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었다(박은정, 2023). 품질 검증의 도구가 학문적 경계를 넘어 학습진단과 교수의 도구로 변용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역번역은 한국어

7)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통번역 기술 학습의 토대로서, 출발어와 도착어 양방향에서 한국어를 원활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임형재와 송은정, 2015, p. 305).

교육 영역에서 총연결강도 1위의 키워드로 독자적 군집을 형성한 반면, 번역학 영역의 키워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여기에는 교수·학습 환경의 차이가 있다. 한국어교육에서는 교수자가 외국어에 접근하기 어려워 역번역과 같은 우회적 방법이 필요했던 반면, 통번역 교육에서는 교수자의 이중언어 능력이 전제되기 때문에 역번역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번역학의 개념이 인접 학문에서 활발히 변용되어 하나의 연구 흐름을 이루는 동안, 그 변용에 대한 번역학 내부의 후속 논의나 두 학문 간 상호 참조는 적어도 본 연구의 분석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개념은 학문의 경계를 넘었으나 이에 대한 검토나 담론이 그 뒤를 따르지 못한 사례이다. 이는 두 학문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접점에 대한 상호 인지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특히 번역학의 개념이 다른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부의 인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관련하여 한국어 통번역을 가르치는 교수자에게 요구되는 언어 능력과 자격 조건은 무엇이며,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는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김혜영(2021, p. 92)은 한국어교육 전공에서 “번역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번역 교과를 개설하지 못한 이유는 번역 교과를 담당할 마땅한 교수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학습자만이 아니라 한국어교원을 위한 통번역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한국어교원을 통번역 교육의 새로운 주체로 재정의하려는 논의까지 등장하고 있다(신윤경과 임형재, 2026). 반면 번역학 분야에서 이 문제를 다룬 논의는 드물다. 성초림(2014, p. 371)이 국어 지식과 통번역 기능을 아우르기 위한 전문통번역사와 국어학자 간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확인되는 정도이다. 한국어교육이 한국어교원을 통번역 교육의 주체로 정립하기 위해 이론적 근거를 축적해 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번역학 연구에서는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 분석은 교류의 방향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까지의 이동은 번역학의 개념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차용하는 일방향이었으나, 역으로 번역학이 한국어교육에서 차용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개념이나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모국어가 서로

다른 다문화 교실에서의 통번역 교육은 전문 통번역사 양성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번역학의 교육 논의에서는 낯선 조건이지만, 한국어교육에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수업 환경을 배경으로 관련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한국어교육이 역번역을 교육 방법으로 발전시키며 축적한 수업 모형과 학습자 번역문 분석의 방법론이 그 예시이다. 이는 번역학이 그대로 수용할 자원이라기보다, 앞서 제기한 교수자의 조건 문제를 포함하여 번역학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개입해야 할 지점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검토는 번역학에는 학습자가 다양화되는 번역 교육 환경에 대한 논의 확장의 계기가 되고, 한국어교육에는 역번역 활용이 이론적 기반 위에서 정교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한국어교육이 활발히 다루고 있는 기계번역과 AI 활용 한국어교육 역시, 번역학이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를 하나의 영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할 때 참조할 만한 지점을 담고 있다. 교류가 어느 한쪽의 차용에 그치지 않고 검토와 개입을 동반한 양방향의 순환이 될 때, 두 학문의 접점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학제 간 연구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번역학과 한국어교육이 서로를 어떻게 연구해 왔는지를 양방향에서 동시에 조망한 첫 시도로서, 두 학문 간 교류의 비대칭을 30년간의 논문 데이터를 통해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편수의 격차만이 아니라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조 차이를 통해 연구 조직화 수준의 격차를 드러냄으로써, 향후 두 학문의 학제 간 논의가 발전할 수 있는 현황 파악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분석 대상을 두 분야의 대표적 KCI 등재 학술지 10종으로 한정하여, 여타 학술지와 학위논문, 단행본에 나타난 교류의 양상은 포착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고에서 저자의 학문적 배경에 대한 논의는 논문에 기재되어 있는 제1저자의 소속 기관과 학과 정보에 근거한 것으로, 소속과 실제 연구 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까지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셋째, 저자 키워드에 기반한 분석은 연구 내용을 개괄적으로 반영할 뿐이며, 키워드에 드러나지 않는 이론적 참조 관계까지 보여주지는 못한다. 두 학문의 상호 참조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논문 본문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 분석과 인용 관계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 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확

인한 비대칭의 지형이 두 학문 모두에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민석. (2026).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한 교양 한국어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탐색 —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우리말연구*, 85, 211-236.
- 강소영, 서효원, 안정민, 한혜민. (202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어디에 위치하는가? — 학문분류체계 속의 정체성 탐색. *한국어교육*, 36(3), 29-59.
- 강승혜. (2003).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분석. *한국어교육*, 14(1), 1-28.
- 곽성희. (1999). Acceptability and grammaticality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한국어교육*, 10(2), 135-152.
- 김지혜. (2025). 학술지 논문 키워드 분석을 통해 본 한국어교육의 연구 주제 변화. *한국어교육*, 36(4), 87-114.
- 김혜영. (2021). 한국어교원을 위한 번역 교육의 현황과 과제. *통번역교육연구*, 19(2), 73-100.
- 박은정. (2023). 역번역을 활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 교육 연구 [박사 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성초림. (2014). 국내 통역번역대학원의 한국어 교육 — 관찰과 제안. *통번역학연구*, 18(3), 361-376.
- 신윤경, 임형재. (2026). 한국어 교육 기반 통번역 교수자의 전문성 논의 — 기능주의와 과정중심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어와문학*, 105, 413-333.
- 이민우. (20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과정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23, 233-259.
- 임형재, 송은정. (2015).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 — 중국어 화자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현황과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2, 303-333.

- 정연일. (1997). 예비 통역사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지도의 방향. 통번역학연구, 1, 93-110.
- 최문선, 김현오. (2017). 통역 전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 한영 통역 전공의 경험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9(3), 159-186.
- 허은혜. (202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 목표 및 교육 내용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20(2), 153-174.
- 홍설영. (2017). 예비통역사를 위한 한국어 수업 사례와 제언. 수사학, 28, 159-184.
- 홍정민. (2017). 전문번역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수업에서 바꿔쓰기 연습의 유용성 고찰. 통번역학연구, 21(1), 275-306.
- Brislin, R. W. (1970). Back-translation for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3), 185-216.
- Holmes, J. S. (1988/2004).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In L.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pp. 180-192). Routledge.
- Munday, J., Pinto, S., & Blakesley, J. (202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Routledge.
- Pym, A. (2014). *Exploring translation theories*. Routledge.

<부록 1> 번역학 분야의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목록(1996~2025)

연번	연도	논문제목	저자 (소속)	게재학술지
1	1997	예비 통역사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지도의 방향	정연일 (한국외대)	통번역학연구 1
2	2003	영·한 번역과 국어의 몇 과제	김정우 (경남대)	통번역교육연구 1
3	2003	통역교육과 한국어 스피치 훈련	박혜경 (한동대)	통역과 번역 5(1)
4	20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에서의 번역 양상 문제	김재욱 (한국외대)	통번역학연구 16(1)
5	2014	국내 통역번역대학원의 한국어 교육 - 관찰과 제안	성초림 (중앙대)	통번역학연구 18(3)
6	2016	터키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번역 수업 개발 연구 - 예르지예스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터키어 - 한국어 번역 연습”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유정숙 (예르지예스 대, 터키)	통역과 번역 18(2)
7	2016	한태 문법용어 번역의 문제점	정환승 (한국외대)	통역과 번역 18(3)
8	2017	통역전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한영 통역 전공의 경험을 중심으로	최문선 (이화여대) 김현오 (이화여대)	통역과 번역 19(3)
9	2017	전문번역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수업에서 바꿔쓰기 연습의 유용성 고찰	홍정민 (이화여대)	통번역학연구 21(1)
10	2018	대만에서의 한류와 현지 통·번역 특화 교육 방안 모색	Wang Ching-Tung (대만 국립 가오슝대)	통번역학연구 22(4)
11	2021	한국어교원을 위한 번역 교육의 현황과 과제	김혜영 (공주교육대)	통번역교육연구 19(2)

12	2021	다문화 영화 외국인의 한국어 오류 현상과 한·영 자막 번역 양상: 영화 <방가? 방가!>를 중심으로	김연주 (부산대) 김명순 (부산대)	통번역교육연구 19(4)
13	2022	통번역 목적 <한국어 숙달> 교과목에 관한 요구 분석 연구 -중국 한·중 MTI 과정 중국인 KFL 학습자를 중심으로-	무자영 (이화여대) 조선헌 (서울대)	T&I REVIEW 12(2)
14	2023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의 우즈베크어 대응 양상 연구: 한국어-우즈베크어 병렬 말뭉치를 기반으로	주은진 (경희대) 굴하요 (경희대)	번역학연구 24(3)
15	202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번역교육 중 기계번역 활용 고찰- 외국인학생 대상 설문조사 기반 -	김지은 (한국외대)	T&I REVIEW 13(1)
16	2024	한국어교육에서의 통번역 수업 특성 연구:교수자의 배경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안정민 (한국외대) 한혜민 (한국외대) 정희란 (한국외대) 정철자 (한국외대)	통역과 번역 26(2)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ranslation studies,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trends and the challenges of interdisciplinary communication

Eun-Kyoung Choi

Departmen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ranslation Studie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have engaged with each other as objects of research. Drawing on 102 articles published between 1996 and 2025 in ten KCI-indexed journals representing the two fields, the study conducts a research trend analysis and a keyword network analysis using VOSviewer. The results reveal a structural asymmetry. Withi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has grown steadily to 86 articles, with a sharp increase from 2019 onward, and has developed a differentiated thematic structure including machine translation and post-editing, back-translation, and translation pedagogy. In contrast, research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within Translation Studies has remained marginal: only 16 articles were published, with no comparable recent growth or cohesive keyword structure. Back-translation provides a particularly revealing example of this limited interdisciplinary exchange. This study argues that Translation Studies needs to place Korean Language Education on its research agenda, and that the two disciplines should move from unilateral borrowing toward reciprocal exchange. By mapping thirty years of research at the intersection of the two fields, the present study provides a starting point for the interdisciplinary dialogue it calls for.

Keywords: Translation Studies,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trends, keyword network analysis, interdisciplinary research

키워드: 번역학,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학제 간 연구

최은경(<https://orcid.org/0009-0003-7779-5585>)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초빙교수
eunkyoung.choi@daum.net

논문 투고일: 2026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9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9월 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9월 15일